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최진혁 의원
- 의안번호 : 제1044호
- 발의일자 : 2023년 8월 14일
-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2. 제 안 이 유

- 서울시 2022년 「도시정책지표조사」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 가구의 22.2%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어 5년 전인 2017년 19.4% 대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반려동물 보유 유형에서는 ‘개’가 82.2%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 및 민원 등을 이유로 놀이터 공급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이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을 장려하도록 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반려견 놀이터 설치와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반려견 놀이터 조성 확대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(안 제26조).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 확대 및 활성화 노력을 규정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반려견 놀이터는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 제2조(정의)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하고 있으며, 2023년 현재 서울시는 총 11개소를 설치·운영하고 있고 2026년까지 16개로 확충하는 목표로 올해는 3개소¹⁾를 추진 중에 있음.

〈서울특별시 반려견놀이터 조성현황〉

서울시	어린이대공원	월드컵공원	보라매공원	매현시민의숲
개장일	'13.7.31	'14.4.30	'16.4.23	'23.6.13.
위치 (면적)	광진구 능동 (747㎡)	마포구 상암동 (1,638㎡)	동작구 신대방동 (1,300㎡)	서초구 양재동 (843㎡)

자치구	도봉구	영등포구	구로구	동대문구	송파구	마포구	강북구
개장일	'17.10.17	'20.3.16	'19.12.2	'20.12.30	'22.1.27.	'22.4.1.	'22.9.20.
위치 (면적)	초안산 근린공원 (800㎡)	안양천 오목교 (116㎡)	안양천 오금교 남단 (700㎡)	중랑천 장안교 하부 (420㎡)	탄천 유수지 (1,221㎡)	마포동 (372㎡)	북서울 꿈의숲 (815㎡)

-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(2022)²⁾에 따른 반려동물 보유 가구율은 최근 5년간 증가추세로 보기는 어렵지만, 2022년은 22.2%로 최근 5년³⁾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보유 유형으로는 개(82.2%)⁴⁾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.

1) 2023년 추진현황 : 은평구 물푸레근린공원, 마포구 상암동, 성동구 송정동

2) 서울특별시, 도시정책지표조사 : 결과보고서(2022), 반려동물 보유 현황(p.90)

3) 반려동물 보유가구율 : 2018년(20.0%), 2019년(20.1%), 2020년(20.0%), 2021년(19.6%), 2022년(22.2%)

4) 반려동물 보유 유형 : 개(82.2%), 고양이(15.2%), 개+고양이(2.1%), 기타(0.4%)

- 따라서 안 제26조와 같이 시장이 반려견 놀이터 조성 확대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미뤄 별도 이견은 없음.

다만, 반려인(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)과 비반려인 간에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갈등⁵⁾이 생기고 있는바, ‘반려견 놀이터 활성화 노력’에는 시민 다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상의 갈등을 완화하는 행정적 노력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계획 초기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5) 동아일보(2022.6.28.) 반려견 갈등원인 시각차…“비반려인 인식”vs“위생·소음”
연합뉴스(2022.6.28.) 반려인-비반려인 갈등 원인은…“비반려인의 적대”vs“반려동물 위생”